

2. 응답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위와 같으나 의사에 의하여 실제로 주어진 방법중 이를 세가지를 받은 수는 IUD 선택자중 14.5%만이 선택한 방법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이 주어졌다.

3. 클리닉에 오는 사람 중 57.6%는 미리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서 오고 15.0%는 특정방법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서 오지만 27.4%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전혀 생각않고 방문한다.

4. 자녀가 많되 특히 아들이 한둘 있는 부인은 IUD 쪽을 더 택하며, 젊고 자녀가 적거나 아들이 없는 부인중에서는 pill 과 injection 을 더 택하였다.

5. 클리닉을 찾은 응답부인중 45.7%는 피임을 처음 시도하는 부인이었고, 17.0%는 재방이었으며, 20.6%는 그 전에하던 피임법을 중단한 지 1년 이내에 왔다.

6. 피임중단이유로는 부작용경험 38.7%, 의학적 부적 10.7%, 방법사용불편(특히 콘돔)26.5%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낭설과 남의 만류로 중단하는 자도 5.5%였다.

7. 클리닉에서 피임을 시작하면 47%는 가능한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31.6%는 5~6년 사용계획이었으며 9%는 1년미만만 사용하겠다는 것인 바 특히 pill 선택자중 1년미만만 쓰겠다는 부인이 16.2%였다.

8. IUD 선택부인중 52.2%는 IUD를 사용하는 친지를 알고 있었고, pill 선택자중에서는 pill 사용하는 친지를 알고 있는 것이 44.4%, injection 선택부인은 16.9%만이 injection 사용친지를 알고 있었다.

9. 피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합의해서 결정하는 부인은 47.8%이고, 31.0%는 남편이 부인이 피임하러 온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, 19.1%는 부인 혼자서 결정하였다. 2.1%는 남편 혼자서 결정하였다.

10. 82.9%는 의사가「서비스」해 주기를 원하고 2.9%는 간호원이 해주기를 원하였고, 14.2%는 아무나 상관없다는 것이었다. 특히 pill 선택부인중 29.5%는 아무나 상관없다고 하였으며 67.6%는 pill 을 받더라도 의사에게서 받기를 원하였다.

11. 피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① 지속적효능, ② 피임효과, ③ 사용편의라는 속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.

일부청년들의 가족계획 및 인공유산에 대한 의견조사

중앙의학, 39권 2호 pp. 127~136, 1980.

도 복 늻외

청년들의 가족계획 및 인공유산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1979년 2월 15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대구시내 남여대학생 1,500명과 인근산업장의 청년 남여근로자 1,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○결혼후 원하는 자녀수는 평균 2.45명이었으며 대학생군은 65.4%가 1~2명, 근로자군은 46.6%가 3~4명의 자녀를 원하여 근로자군이 더많은 자녀를 원하였다.

○무자녀 결혼생활에 대해 불완전하다고 한 반응은 전대상의 58.6%이었고 특히 대학생군이 75.3%의 반응을 보였으나 근로자군은 51.9%가 별문제가 dks 된다고 응답하여 양군간에 유의적인 의견의 차를 보였다.

○결혼후 임신조절의 책임이 두사람 모두에 있다는 반응은 전대상의 64.5%이었고 대학생군의 76.5%, 근로자군의 52.5%가 이 반응을 보였다. 성별로는 양군이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이 반응하였다.

○자녀수의 제한이유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전 대상의 39.7%, 대학생군의 63.5%이었고 근로자군의 32%는 보다 나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.

○인공유산이 모체건강에 해롭다는 반응은 전 대상의 53.3%, 대학생군의 56.3%, 근로자군의 50.4%이었고 대학생군의 남자가 40.4%, 여자가 72.1%, 근로자군의 남자가 30.5%, 여자가 70.3%로 나타나서 양군간 및 양군의 각 성별간에 유의적인 의견의 차가 있었다.

○인공유산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전 대상의 57.2%, 대학생군의 63.1%, 근로자군의 52.8%가 찬성하였고 대학생군의 남여가 각각 56%, 70.3%, 근로자군의 남여가 46%, 59.7%가 찬성하여 양군간 및 양군의 각 성별간에 유의적인 의견의 차가 있었다.

○인공유산이 인구통제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반응을 전 대상의 51.4%, 대학생군의 57%, 근로자군의 45.8%이었고 대학생군의 남여가 각각 60.5%, 53.6% 근로자군의 남여가 45.1%, 46.6%로 결정하여 양군간 및 양군의 각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

○고소득층의 인공유산은 허락해서는 안된다에 대해서 전 대상의 56%, 대학생군의 68.1%, 근로자군의 남여가 각각 66.7%, 69.5%, 근로자군의 남여가 50.5%, 37.3%로 찬성하여 양군간 및 양군의 각 성별간에 유의한 의견의 차가 있었다.

○임부자신의 출산의사에 따라 인공유산을 결정해야한다는 반응은 전 대상의 39%, 대학생군의 52%, 근로자군의 26%이었고 대학생군의 남여가 각각 47.6%, 56.5%, 근로자군의 남여가 23%, 29%로 응답하여 양군간 및 양군의 각 성별간에 유의적인 의견의 차가 있었다.

○경제적 여유가 없을때, 미혼녀가 임신했을때, 부부가 더 이상 아기를 원치 않을때의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각각 전 대상의 60.5%, 47%, 61.8% 등으로 찬성하였으며 대학생군이 근로자군 보다 더 찬성율이 높고 대학생군은 여자가 남자보다, 근로자군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찬성율이 높았다.